
주요국 예산안 - 캐나다

[Budget 2022]

2022. 5.

연구책임자

김우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송경호 경제재정분석팀장

공동연구원

김진아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4
3. 예산안 내용	5
가. 세입	5
나. 세출	8
4. 주요 재정정책	12
가. 주택·부동산 정책	12
나. 기후 정책	13
다. 성장 및 일자리 창출	16
라. 보건 분야	18
마.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	19
바.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건설	20
사. 글로벌 리더십 강화	21
아. 공평한 조세시스템 및 효율적 정부	22
자. 재정건전화	24

캐나다 개요1)

□ FY2022 : 2022.4~2023.3

□ 출처

○ Budget 2022 (2022.4.7)

□ 환율 : 1캐나다달러 = 약 913.26원(2021년도 1월~12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 2021년 GDP 1조 9,908억 달러

□ 인구 : 2021년 약 3,825만명

□ 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



1)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22.4.21. 추출, <https://ecos.bok.or.kr/>) 기준;
경제규모, 인구, GDP(expenditure approach, CXC: Current prices, current exchange rates)는 OECD Stat(2022.4.21.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22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3.9%, 7.7%,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5.8%, 3.9%로 전망
- (재정전망) FY2022-23 재정적자는 52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2.0%)이며, 이후 FY2026-27까지 8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0.3%)로 점차 개선될 전망

□ 예산기조

- 캐나다 연방정부는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A Plan to Grow Our Economy and Make Life More Affordable」)
 - 주거, 기후대응,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22-23 총세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4,08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5.2%)로 전망되며,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FY2026-27까지 15.7%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세출) 총세출은 FY2022-23 전년대비 10.1% 감소한 4,254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주거) 주택공급 확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 확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기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오염저감 정책,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확대
- (일자리 및 성장) 성장기금(Canada Growth Fund) 설립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 캐나다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 구현, 캐나다 소규모 기업 연방 세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일자리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제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실질GDP 성장률)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4.6%의 강한 반등에 이어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21 경제 및 재정업데이트(Economic and Fiscal Update, 이하 EFU) 대비 0.3%p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1분기 성장 둔화를 반영한 것에 기인
 - 2021~2026년 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2021년 EFU 전망보다 0.1%p 상향 조정된 2.9%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 2022년 명목GDP 성장률은 2021년 EFU 전망 대비 1.0%p 상향 조정된 7.7%로 전망
- (실업률) 2022년 실업률은 2021년 EFU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5.8%로 전망되며, 2023년 이후 전망기간 동안 5.5%까지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21~2026년 평균 실업률은 2021년 EFU 전망 대비 0.3%p 하락한 5.8%로 전망
- (물가상승률)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됨에 따라 2021년 EFU 전망 대비 0.8%p 상향 조정된 3.9%로 전망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 내외 수준으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표 1> 캐나다 경제전망

(단위 :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1-26
실질GDP 성장률	2021 EFU	4.5	4.2	2.8	2.0	1.8	1.8	2.8
	Budget 2022	4.6	3.9	3.1	2.0	1.9	1.8	2.9
명목GDP 성장률	2021 EFU	12.8	6.7	4.3	3.9	3.7	3.8	5.9
	Budget 2022	13.1	7.7	4.8	3.9	3.8	3.7	6.2
실업률	2021 EFU	7.6	6.1	5.7	5.7	5.6	5.7	6.1
	Budget 2022	7.4	5.8	5.5	5.5	5.5	5.5	5.8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21 EFU	3.3	3.1	2.3	2.1	2.1	2.0	2.5
	Budget 2022	3.3	3.9	2.4	2.2	2.1	2.0	2.6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Table A1.1 일부 발췌, 2022.4.7.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22-23 재정수지는 -528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2.0%)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6-27에는 -8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0.3%)를 기록할 전망
- (총수입) FY2022-23 총수입은 전년대비 140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4,084억 캐나다달러 (GDP 대비 15.2%)로 전망되며, 향후 FY2026-27까지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15.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총지출) FY2022-23 총지출은 전년대비 456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4,523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22-23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대비 476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4,254억 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전년대비 20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26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프로그램 지출은 FY2022-23까지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나 이후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이자지출은 FY2020-2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²⁾ 비율은 FY2022-23에는 45.1%를 기록한 후,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FY2026-27에 41.5%를 기록할 전망

<표 2>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20-21	전망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총수입	316.4	394.4	408.4	429.5	450.8	475.1	496.0
총지출	628.9	497.9	452.3	463.3	476.2	492.9	506.1
프로그램지출	608.5	473.0	425.4	430.4	439.2	453.1	463.3
이자지출	20.4	24.9	26.9	32.9	37.0	39.8	42.9
재정수지	-327.7	-113.8	-52.8	-39.9	-27.8	-18.6	-8.4
연방채무	1,048.7	1,160.8	1,213.7	1,253.6	1,281.4	1,300.0	1,308.4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3	15.8	15.2	15.2	15.4	15.6	15.7
프로그램지출	27.6	18.9	15.8	15.3	15.0	14.9	14.7
이자지출	0.9	1.0	1.0	1.2	1.3	1.3	1.4
재정수지	-14.9	-4.6	-2.0	-1.4	-0.9	-0.6	-0.3
연방채무	47.5	46.5	45.1	44.5	43.8	42.8	41.5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Table A1.4 일부 발췌, 2022.4.7.

2. 예산기조

- 캐나다는 2022년 4월 7일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Budget 2022: A Plan to Grow Our Economy and Make Life More Affordable)
- 이번 예산안에서는 주거, 기후 대응,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 (주거) 향후 10년간 주택건설 2배 추진, 생애 최초 주택구매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외국인 주택구매 금지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경제성장 및 혁신에 대한 투자) 성장기금(Canada Growth Fund)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캐나다 최초의 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 구현을 위한 자금지원, 소규모 기업 연방세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성장 및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
 - (기후) 기업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 지원, 배기가스 제로차량 구입 지원, 배기가스 제로차량 충전소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청정에너지 신규투자 등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 (기타) 이 밖에도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부담의 덴탈케어 제공, 의료 지연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아동수당·노령연금과 같은 주요 수당 인상 등의 정책 포함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22-23 총세입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4,08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5.2%)로 전망되며, FY2026-27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5.7%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조세수입) FY2022-23 조세수입은 전년대비 94억 캐나다달러(2.8%) 증가한 3,421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2.7%)로 전망
 - (개인소득세) 총세입의 약 55.2%³⁾를 차지하는 개인소득세는 FY2022-23 전년대비 79억 캐나다달러(4.1%) 증가한 1,973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FY2021-22 개인소득세는 가계소득의 강한 회복세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에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법인세는 산업 부문 전반에 걸친 수익증가에 힘입어 FY2021-22에 3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22-23에는 6.1% 감소한 후 전망기간 동안 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Y2022-23 법인세 감소는 상품가격의 안정화 및 팬데믹 기간 동안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회성 요인이 사라지는 것에 기인
 - (비거주자 소득세) FY2022-23 비거주자 소득세는 전년대비 6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109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4.8%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22-23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대비 38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478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과세대상 소비전망에 따라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관세) FY2021-22 이후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경기 회복과 관세면제 수요 감소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수입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탄소세) 탄소세는 전망기간 동안 약 20억 캐나다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 증가는 주로 재정계획 기간 동안의 탄소가격 상승에 기인

3) 2020-21 기준

- 탄소가격은 2021년 8월 발표된 “Update to the Pan-Canadian Approach to Carbon Pollution Pricing 2023-30⁴⁾”에 명시된 대로 2023년부터 톤당 15 캐나다달러씩 인상되는 가격을 반영하여 전망
- (고용보험) FY2022-23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전년대비 20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258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전망기간 동안 노동시장의 상당한 성장으로 고용보험 수입은 연평균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5.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기타 세입) FY2022-23 기타 세입은 전년대비 11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323억 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4)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pricing-pollution-how-it-will-work/carbon-pollution-pricing-federal-benchmark-information/federal-benchmark-2023-2030.html>, 2021.8.5., 검색일자: 2022.4.26.

<표 3> 세입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대비 %)

	2020-21	Projection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총 소득세	237.0	272.5	276.6	287.1	299.2	314.7	328.6
개인소득세	174.8	189.4	197.3	205.7	214.7	225.5	236.1
법인세	54.1	72.8	68.4	69.9	72.5	76.8	79.5
비거주자소득세	8.1	10.3	10.9	11.5	12.0	12.4	13.0
총 소비세	47.0	60.2	65.3	67.9	69.9	72.0	74.4
재화 및 용역세	32.4	44.0	47.8	49.5	51.2	52.8	54.7
관세	4.3	5.1	5.5	5.9	6.2	6.5	6.9
기타소비세	10.3	11.1	12.0	12.5	12.6	12.7	12.8
기타조세	0.0	0.0	0.2	0.9	0.9	1.0	1.0
총 조세수입	283.9	332.7	342.1	355.9	370.0	387.8	404.1
탄소세	4.4	6.7	8.2	10.2	12.3	14.2	16.2
고용보험	22.4	23.8	25.8	28.0	30.4	32.2	33.3
기타 세입	5.7	31.2	32.3	35.4	38.1	40.9	42.3
총 세입	316.4	394.4	408.4	429.5	450.8	475.1	496.0
GDP 대비 비중(%)							
총 조세수입	12.9	13.3	12.7	12.6	12.6	12.8	12.8
탄소세	0.2	0.3	0.3	0.4	0.4	0.5	0.5
고용보험	1.0	1.0	1.0	1.0	1.0	1.1	1.1
기타 세입	0.3	1.3	1.2	1.3	1.3	1.3	1.3
총 세입	14.3	15.8	15.2	15.2	15.4	15.6	15.7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Table A1.5 일부 발췌, 2022.4.7.

나. 세출

- FY2022-23 총세출은 전년대비 476억 캐나다달러(10.1%) 감소한 4,254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이후 총세출은 매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FY2022-23 1,251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FY2024-25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노인지원) 노인부문 지출은 FY2022-23 682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할 전망이며, 전망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여 연평균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보험) 고용보험 지출은 팬데믹 관련 임시 조치 만료와 실업률 하락에 기인하여 FY2023-24까지 244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며, 이후에는 연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근로자 소득지원) 캐나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질병 및 간병수당 연장⁵⁾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⁶⁾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소득지원 프로그램 비용은 FY2021-22 177억 캐나다달러, FY2022-23 4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아동지원) FY2022-23 아동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s)은 2020년 도입된,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임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52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이후 전망기간 동안은 예상 수급자 증대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⁷⁾)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22-23 900억 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26-27에는 1,105억 캐나다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5) sickness and caregiving benefits: 2022년 5월 7일까지 연장

6) 캐나다는 공중보건 폐쇄로 인한 직접적 피해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을 도입하였으며 2022년 5월 7일까지 시행예정

7)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 (보건지출) FY2021-22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2022년 3월 25일 의료기금 20억 캐나다달러 추가 지출을 포함하여 451억 캐나다달러가 될 전망이며 FY2026-27에 560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 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하며 매년 최소 3% 증가 보장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으며, FY2021-22 155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6-27 179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홈케어 및 정신보건) 2017예산에서 도입된 지방·주정부 홈케어및정신보건 지원금은 FY2022-23 이후 연간 12억 캐나다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전망
- (유아교육 및 보육) 캐나다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⁸⁾ 관련 이전지출은 FY2021-22 29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6-27 79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탄소세 반환) 탄소세는 다시 관할 정부부문으로 반환되는데, 탄소세 가격 상승에 따라 탄소세 이전지출은 FY2021-22 41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6-27 162억 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⁹⁾) FY2021-22 직접프로그램지출은 2,375억 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코로나19 지원 혜택이 종료되고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FY2026-27에는 1,936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
 - (기타 이전지출) 팬데믹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하여 부처에서 관리하는 지출은 FY2021-22 942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791억 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
 - (운영비용¹⁰⁾) 운영비용은 코로나19 백신 및 개인보호장비, 치료제 등 팬데믹 관련 비용 감소에 따라 FY2021-22 1,224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24-25 1,129억 캐나

8) 캐나다 정부는 2021년 예산에서 향후 5년간 약 30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음. 캐나다 가정의 생활비 절약을 위해 하루 평균 10달러의 보육 공간을 제공하고 2022년 말까지 평균 비용의 50% 감소 계획.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A 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Plan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1/12/a-canada-wide-early-learning-a-nd-child-care-plan.html>, 2021.12.16., 검색일자: 2022.4.26.

9) 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분하여 부처에 예산을 배분

10) 운영비용은 100개 이상의 정부부처, 기관 및 공기업 운영비용을 반영

다달리로 감소할 전망

<표 4>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GDP대비 %)

	2020-21	Projection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 (Major Transfers to persons)	200.1	144.0	125.1	124.6	130.4	136.4	142.9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58.5	61.0	68.2	73.6	78.0	82.6	87.2
고용보험(EI benefits) ¹⁾	58.4	39.0	31.3	24.4	24.8	25.4	26.3
코로나19 근로자 소득지원 ²⁾	55.8	17.7	0.4	0.0	0.0	0.0	0.0
아동수당(Child benefits)	27.4	26.3	25.2	26.6	27.6	28.5	29.4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106.7	87.4	90.0	96.9	102.2	107.2	110.5
보건(Canada Health Transfer)	45.9	45.1	45.2	49.1	51.8	53.9	56.0
사회보장(Canada Social Transfer)	15.0	15.5	15.9	16.4	16.9	17.4	17.9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20.6	20.9	21.9	23.8	25.1	26.1	27.1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4.2	4.6	4.6	4.9	5.1	5.2	5.4
지역사회구축기금(Community Building Fund)	4.3	2.3	2.3	2.4	2.4	2.5	2.5
홈케어및정신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1.3	1.5	1.2	1.2	1.2	1.2	1.2
유아교육및보육(Canada-wide 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0.0	2.9	4.5	5.6	6.6	7.9	7.9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³⁾	15.4	-5.2	-5.6	-6.5	-6.8	-7.1	-7.5
탄소세 반환(Proceeds from the Polluti on pricing framework returned)(C)	4.6	4.1	8.0	11.9	12.4	14.3	16.2
직접프로그램지출(D) (Direct Program Expenses)	297.2	237.5	202.2	197.1	194.2	195.2	193.6
긴급임금보조금(Emergency Wage subsidy)	80.2	20.9	0.0	0.0	0.0	0.0	0.0
기타 이전지출(Other Transfer payments)	98.0	94.2	86.3	83.7	81.3	81.3	79.1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⁴⁾	119.1	122.4	116.0	113.4	112.9	113.8	114.5
총 프로그램지출(A+B+C+D) (Total Program Expenses)	608.5	473.0	425.4	430.4	439.2	453.1	463.3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9.1	5.8	4.7	4.4	4.5	4.5	4.5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4.8	3.5	3.3	3.4	3.5	3.5	3.5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13.9	9.5	7.5	7.0	6.6	6.4	6.1
총 프로그램지출 (Total Program Expenses)	27.6	18.9	15.8	15.3	15.0	14.9	14.7

-
- 주: 1)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등이 포함
- 2)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anada Recovery Benefit,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포함
- 3)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및 Stand Programs에 대한 대체 지불, 역외 수익에 대한 Canada-Nova Scotia 협정에 따른 지불, 잠재적 재정안정화 지급금을 포함. 또한 특정 코로나19 대응조치(Safe Restart Agreement, Safe Return to Class Fund, the COVID-19 Essential Workers Support Fund, and Canada's COVID-19 Immunization Plan) 및 주택공급 개선 관련 자금도 포함
- 4)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Table A1.6 일부 발췌, 2022.4.7.

4. 주요 재정정책

가. 주택·부동산 정책

□ (주택공급 확대) 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캐나다 주택 건설을 2배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캐나다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궁극적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분석¹¹⁾하에 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예산을 투입

- 2022-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4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주택 가속화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
 - 향후 5년간 1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 가속화 기금의 목표
 - 주택 가속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세대당 인센티브를 주거나 주택건설 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선행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빠른 주택건설을 추진
- 보다 신속하게 가격 경쟁력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23 회계연도부터 향후 2년간 신속 주택정책(Rapid Housing Initiative)에 15억 캐나다달러를 제공
 - 최소 6,000개의 저가 주택이 공급될 것이며, 위 예산의 최소 25%는 여성 중심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
- 2023년부터 다세대 주택 개조 세액 공제(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를 도입하여 노인 또는 성인인 장애인을 위한 secondary suite을 건설할 경우 세액을 최대 7,500 캐나다달러 환급할 계획

□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캐나다인이 보다 많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여러 혜택을 마련

- 2023년부터 비과세 첫주택 저축계좌(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신설하여 무주택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 4만 캐나다달러까지 비과세로 저축 가능

11)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음

- 매년 최대 8천 캐나다달러까지 5년간 총 4만 캐나다달러를 저축할 수 있으며,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할 경우 원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액 공제(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를 기존보다 2배 늘린 1만 캐나다달러로 확대하며 2022.1.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 (부동산 투기 억제) 단기간 매매에 대한 중과세,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 2023년 1월 1일부터 12개월 미만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사업 소득으로 보아 전액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 단, 사망, 사고, 출산, 직장이동,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 12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예외 인정
- 캐나다 국민이 보다 많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주거용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
 - 단, 레크리에이션 용도 구매 허용, 영주권자 및 유학생, 임시근로자 등은 주택 구매 가능

나. 기후 정책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000억 캐나다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오염저감) 캐나다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정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도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신차 판매분의 일정 비율을 무공해차량(zero-emission vehicle; ZEV)이 되도록 규정 개정 예정

- 더 많은 캐나다인이 무공해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2025년 3월까지 연장하며, 5년에 걸쳐 17억 캐나다달러의 예산 투입
 - 2022년 캐나다 인프라 은행(Canada Infrastructure Bank)은 대규모 도시 및 상업용 ZEV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5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할 예정
 - 또한,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에 5년간 4억 캐나다달러를 배정하여 지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자금 지원 예정
 - 기업들이 소유한 중형 및 대형 차량을 ZEV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해 4년에 걸쳐 5억 4,750억 캐나다달러 투입
 - 저탄소 경제기금(Low Carbon Economy Fund)¹²⁾ 확장에 FY2022-23부터 7년 동안 22억 캐나다달러를 지원
 - 농업 청정 기술 프로그램(Agricultural Clean Technology program)에 3억 2,94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3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캐나다 전역의 농업 종사자들이 저탄소 고효율의 농업 방식을 따르도록 지원
- (청정 전력(clean electricity) 정책 추진) 청정 전력 개발 및 계획 수립 등 지원 확대
- FY2022-23부터 4년간 2억 5,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국가의 중요한 청정 전력 프로젝트의 사전적 개발을 지원(지역 간 송전 능력 강화 및 소형모듈 원자로 등)
 - 스마트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사업에 7년간 6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고, 주정부와 협력해 탄소배출량 제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500만 캐나다달러 지원

12) 저탄소경제기금은 2017년 설립되어 캐나다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성장을 창출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약 132개 프로젝트를 지원함. 풍력, 태양열 발전, 전기 난방과 같은 배출 감소 기술을 건물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limate-change/low-carbon-economy-fund/what-is-lcef.html>, 검색일자: 2022.5.3.

-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넷제로, 배터리, 수소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청정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확대
 - 캐나다는 2022 예산안에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탄소배출 제로, 배터리 저장 및 청정수소 기술에 중점을 둔 최대 30%의 투자 세액 공제 계획을 발표
 - 투자 세금 공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2 가을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fall economic and fiscal update)에서 제공
 -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¹³⁾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위한 노력 지속
 -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 세액 공제율은 직접적으로 공기에서 CO2를 포집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60%, 기타 CO2 포집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50%, 운송·저장·활용 장비에 대한 투자 37.5%이며,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세액 공제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 세액공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FY2022-23부터 5년간 26억 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간 15억 캐나다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청정 해양 및 수질 관련 정책) 해양안전 강화, 해양 생태계 보호, 원주민 및 해안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추가 조치 시행
 - 해양보호계획(Oceans Protection Plan) 확대를 위해 FY2022-23부터 9년간 20억 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원주민 사회, 산업, 투자자 및 모든 캐나다인이 해양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활동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
 - 2022년에 설립될 수질청(Canada Water Agency) 설립에 5년간 4,350만 캐나다 달러, 2022-23 Freshwater Action Plan¹⁴⁾에 1,960만 캐나다달러, the Great

13) 대기에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여 저장한 CO2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기술이며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꼽힘

14) 위 계획은 Great Lakes, the St. Lawrence River, Lake Winnipeg, Lake of the Woods, the Fraser River, the Saint John River, the Mackenzie River, and Lake Simcoe의 정화 활동을

Lakes Fishery Commission 지원을 위해 5년간 4,490만 캐나다달러 지원 등 수질개선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 노력

다. 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캐나다 성장기금: Canada Growth Fund) 중요한 국가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당한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캐나다 성장기금 설립을 발표
 - 향후 5년간 정부예산 150억 캐나다달러를 자본금으로 투자해 정부 투자 1달러당 민간 자본 3달러 유치를 목표로 운용하게 되며, 저탄소 산업 및 신기술 육성에 투자하여 경제를 다각화하고 수출을 강화할 것이라 발표
- (성장하는 소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소기업 세율 적용대상 기업¹⁵⁾의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함
 - 2022 예산안에서는 소기업 과세대상 자본 기준을 1,500만 캐나다달러에서 5,000만 캐나다달러까지 확대하여 9%의 연방 법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FY2026-27까지 약 66억 캐나다달러의 세금절감 효과를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최초의 중요 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¹⁶⁾) 연방정부는 중요 광물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8년간 38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글로벌 광물 산업에서의 주요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 공언
- (혁신투자청 설립) 캐나다의 낮은 비즈니스 R&D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캐

지원

15) 캐나다 연방 법인세율은 15%이나 사업소득 50만 캐나다달러까지는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세율을 9% 적용하고 있음

1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캐나다는 주요 자원국으로서의 지위가 급부상하고 있음. 캐나다는 주요 광물들이 풍부한 자원 공급국이나 대부분 먼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

나다 혁신투자청(Canada Innovation and Investment Agency) 설립에 10억 캐나다달러 배정

- (공급망 인프라 확충) 연방정부는 경제 수요에 부합하고 기후변화 및 글로벌 이슈로 인한 성장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6억 32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효과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인프라를 갖출 계획
 - 캐나다 교통망을 확충·재정비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 중심 솔루션 개발 등에 투자

- (유아교육 및 보육) 합리적 비용과 양질의 보육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보다 많은 여성이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및 경제 정책임
 - 2021년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5년간 30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를 약속했으며, 그 이후 1년간 모든 주 및 준주와 합의하여 2022년 말까지 캐나다 가정의 보육비는 평균 50% 감소할 전망
 - FY2025-26까지 캐나다 전역의 모든 보육시설은 하루 평균 보육비가 10달러가 될 예정
 - 2022년 예산안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반 시설 기금(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Infrastructure Fund)에 FY2023-24부터 4년에 걸쳐 6억 2,500만 캐나다달러를 배정하여 캐나다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 구현을 지원

- (이민)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을 위하여 캐나다는 '2022-24 Immigration Levels Plan'에서 연간 451,000명의 영주권을 승인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
 - 연방정부의 아프간 난민 지원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영주권자의 캐나다 정착을 위하여 5년간 21억 캐나다달러의 지원을 약속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 관련 접근가능하고 시기적절한 정부의 서비스 대응 능력 제고 목적의 기술 투자 등에 5년간 1억 8,73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

- (근로자 지원 및 양질의 직업 연결) 외국인 근로자 및 현장근로자, 장애인 등을

위한 근로자 지원 확대

- 노동 이동성 공제(Labour Mobility Deduction)를 도입하여 건설업과 같은 현장 직 근로자가 출장, 임시 이전 등 관련 비용을 매년 최대 4,000캐나다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FY2026-27까지 5억 9,500만 캐나다달러 배정
- ‘Union Training and Innovation Program’에 향후 4년간 8,42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3,500명의 여성, 신규이민자, 장애인, 원주민, 유색 캐나다인의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캐나다 일자리 및 성장을 지원할 계획
- 임시외국인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¹⁷⁾ 제도 개선에 향후 5년간 1억 5,9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
 - 고용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 포함
- 장애인을 위한 고용 전략 실행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참여 증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2억 7,260만 캐나다달러 배정

라. 보건 분야

- (국가 보조 덴탈케어¹⁸⁾)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53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하여 연 소득 9만 캐나다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비용을 제공
 -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 12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3년 18세 미만과 노인, 장애인으로 확대하며 2025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 연소득 7만 캐나다달러 미만 가정에게는 분담금이 면제됨

- (의료지연 해소) 연방정부는 의료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주정부에 교부하는 의료

17) 임시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인이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오는 근로자들은 농업, 어류 및 기타 식품가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노동에 기여함

18) 캐나다인의 1/3이 치과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교부금(Canada Health Transfer)에 20억 캐나다달러 추가 배정

-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약 70만 건의 진료가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FY2020-21에도 연방정부는 40만 캐나다달러를 주 정부에 지원한 바 있음
- (지역사회 의료인력 확충) 도시와 떨어진 지역사회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 면제(loan forgiveness to doctors and nurses) 제도 확대 시행 예정
 -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FY2023-24부터 4년간 2,62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
 - 1인당 50%까지 상환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 경우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최대 6만 캐나다달러, 간호사는 최대 3만 캐나다달러까지 학자금 상환이 면제됨
- (정신건강 개선) 연방정부는 2년간 'Wellness Together Canada(WTC) 포털'에 1억 4,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하여 국민들의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WTC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옴
-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¹⁹⁾) 오피오이드 위기 대응을 위해 FY2022-23부터 3년간 1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피해 감소·치료·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구축에 지원

마.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

- (퍼스트네이션 아동 지원) 연방정부는 FY2021-22부터 6년간 40억 캐나다달러를

19) 오피오이드 위기란 주로 북미지역과 일부 유럽지역에서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 및 펜타닐 유사체 등)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 및 내원 사례가 급속히 증가해 해당 국가에서 이를 '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약물 과다 사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오 피오이드 위기 대응책을 실시

제공하여 퍼스트네이션(First Nations)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Jordan's Principle²⁰⁾ 이행을 위한 장기적인 개혁에 필요한 지원 자금을 제공

- 연방정부는 2016년 이후 퍼스트네이션 아동들의 성장에 필요한 의료, 사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지원을 위해 약 24억 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해오고 있음
- (원주민 지역사회 지원) 원주민들의 건강 및 정신건강 관리 지원,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아동들의 초중등 교육지원, 안전한 식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지원 등 원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제시
 - 2022년에도 원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해 4억 5,900만 캐나다달러, 향후 2년간 원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2억 2,76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
 - 퍼스트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족의 안전한 주거생활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7년간 약 4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계획
 - 퍼스트네이션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3억 1,060만 캐나다달러 추가 지원
 - 원주민 지역사회의 안전한 식수관리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5년간 6억 3,900만 캐나다달러 투자
 - 팬데믹 기간 동안 토착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금 50%에 대한 상환면제 등 지역사회 기반의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

바.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건설

- 연방정부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캐나다를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 및 유색인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시
 - (성소수자 지원) 건강,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한 성소수자(LGBTQ2)에 대

20) 캐나다 인권재판소는 2016년 퍼스트네이션 아동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과 오랜 차별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를 Jordan's Principle 이라 명명함.

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FY2022-23부터 5년간 1억 캐나다달러를 책정

- (인종차별 대응) 새로운 반인종차별 전략(Anti-Racism Strategy)을 포함한 인종 차별 대응을 위해 FY2022-23부터 4년간 8,5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
- (흑인 단체지원) 흑인 봉사 지역단체 지원에 2년간 5,000만 캐나다달러 할당
- 또한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성(gender) 기반의 폭력에 대응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제시
- (노인 및 장애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노령연금(OAS) 및 소득보장보조금(GIS) 인상, 노인 및 장애인의 집수리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규모를 2배로 확대
- (젠더 갈등) 연방정부는 주정부 및 준주와 협력하여 젠더 기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FY2022-23부터 5년간 5억 3,930만 캐나다 달러의 예산 배정

사.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국방력 강화) 이번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캐나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5년간 80억 캐나다달러 증액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가 포함되어 있음
- 군사력 강화를 위한 장비 및 기술 투자에 5년간 61억 캐나다달러 지원 계획
- 군대 리더십 강화, 사법시스템 현대화 등의 지원에 1억 캐나다달러, 여군을 위한 건강서비스 확충 등 군대 내 성 다변화를 위한 지원에 1억 4,430만 캐나다 달러 등 군 문화 변화 관련 지원에 5년간 2억 4,400만 캐나다달러 투입
-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에 5년간 9억 4,000만 캐나다달러 배정
- (국제사회 지원) 2022년 예산안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세계 보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 2022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검사, 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²¹⁾(ACT-A)에 추가로 7억 3,200만 캐나다달러를 제공
 - 2020년부터 캐나다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에 동참하고자 27억 캐나다달러 이상의 국제지원을 약속했으며, 2022년 ACT-A에 대한 지원금은 20억 캐나다달러 이상이 될 전망
- 캐나다는 2022년 전염병 예방 및 대응과 같은 글로벌 보건안보 우선순위 해결을 위한 지원에 FY2023-24부터 4년간 2억 9,6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아. 공평한 조세시스템 및 효율적 정부

- (공평한 조세시스템) 연방정부는 조세시스템을 보다 공평하게 만드는 추가 조치를 제안
 - (캐나다 회복분담금(Canada Recovery Dividend)) 연방정부는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광범위한 회복을 위해 대형 금융기관의 2021 과세연도 소득 중 10억 캐나다달러 초과분에 대해 일회성으로 15%의 세금을 부과
 - 또한 1억 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은행 및 보험사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5%p 인상하는 등 향후 5년간 61억 캐나다달러의 세입 증가 예상
 - (조세회피) 소득세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여 5년간 42억 캐나다달러 세입 증가 추진
 - (국세청 강화) 연방정부는 5년간 12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국세청 기능 강화²²⁾에 투자할 것이며, 이 조치로 5년간 34억 캐나다달러의 추가 세입 확보 예상
- (효율적 정부운영)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캐나다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21)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ACT-A

22) 감사 확대, 범죄적 탈세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 강화, 교육지원 확대 등

- (계획된 지출감소 검토) 2022 예산에서 정부는 향후 4년간 발표된 정책에 대한 지출의 속도와 규모를 검토하여 30억 캐나다달러를 절감할 계획
- (전략적 정책 검토)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전략적 정책 검토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향후 5년간 60억 캐나다달러, FY2026-27에는 30억 캐나다달러 절감을 목표로 함
- 우선적으로 경제성장, 포용성 강화, 기후대응이라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정부 프로그램과 운영을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재할당하기 위한 검토를 시행

<표 5> 2022년 예산안 주요 조치에 대한 투자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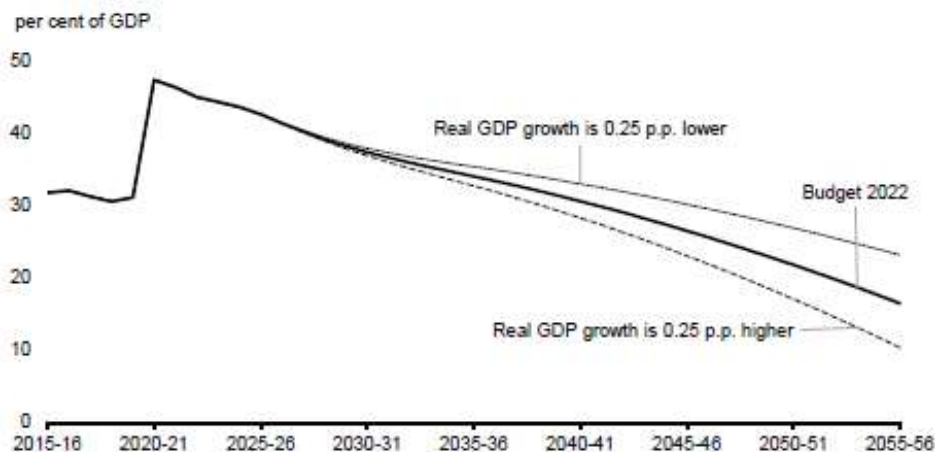
	Projection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부동산 정책	0.7	2.0	2.2	2.1	2.2	1.0
강한 성장, 회복력 있는 경제	0.0	0.3	1.4	1.2	1.3	1.3
기후대응	0.0	1.3	2.2	3.0	2.9	3.0
중산층 일자리 창출	0.0	0.8	1.3	1.4	1.2	1.2
글로벌 리더십	0.0	1.7	1.5	1.9	2.0	2.3
강한 공공 보건의료	1.3	0.7	0.8	1.3	1.4	1.6
원주민과 화합	0.2	2.5	2.0	1.9	1.9	2.0
안전하고 포용적 지역사회	0.0	0.2	0.4	0.4	0.3	0.3
공평한 조세시스템	0.0	-2.0	-3.3	-3.6	-3.7	-3.9
효율적 정부	0.0	0.0	-0.7	-1.7	-2.7	-3.7

주: 1. +는 투자 증가분, -는 투자 감소분을 의미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Table 1., 2022.4.7.

자. 재정전전화

- 캐나다의 GDP 대비 장기 국가채무 전망²³⁾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 공공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로로 순항하고 있음
 - 캐나다의 장기 국가채무는 불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 완만한 미래 생산성 성장률, 예상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분야에 재투자하여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평가

[그림 1] 캐나다 장기 국가채무 전망



주: 점선은 2027년부터 실질GDP 성장률이 0.25p.p씩 높고/낮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임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Chart A1.4, 2022.4.7.

- FY2022-23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²⁴⁾으로 본 FY2022-23 연말기준 총시장채무²⁵⁾는 1조 2,910억 캐나다달러로 전년대비 590억 캐나다달러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및 단기국채) FY2022-23 유가증권은 1조 630억 캐나다달러,

23) 방법론 및 주요 가정은 원문 참고.

24)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외 채무, 기타 금융부채 및 관련자산의 관리에 대한 목표·전략·계획을 설정

25) 캐나다의 총채무(Gross debt) 중 시장채무(Market de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시장채무관리를 주로 다룸. 예산안 및 재무결산상 채무지표는 연방채무(누적 기준)이나, 예산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채무(유가증권, 단기국채, 외채, 소매채무로 구성)를 중심으로 중기 채무전략을 보여줌.

FY2022-23 단기국채는 2,13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소매채무 및 외채) FY2022-23 외채는 150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6> FY2021-22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연말기준, 십억 캐나다달러)

	2018-19 (실적)	2019-20 (실적)	2020-21 (실적)	2021-22 (추정)	2022-23 (전망)
유가증권(Domestic bonds)	569	597	879	1,031	1,063
단기국채(Treasury bills)	134	152	219	187	213
외채(Foreign debt)	16	16	15	14	15
소매채무(Retail debt)	1	1	0	0	0
총 시장채무(Total market debt)	721	765	1,114	1,232	1,291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Table A2.3, 2022.4.7.